

독일 재해보험조합(DGUV) 2017년 연감

이영순 이사장님 인터뷰 자료



출처 :「We are kommunitmenschen: DGUV PREVENTION YEARBOOK 2017」pp. 8~13

우리 삶의 근간인 안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영순

예방문화는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2008, 서울 개최)의 주제로서 동대회에서 정책적인 안건으로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제18회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서'의 메시지인 "전 세계 예방문화 촉진"의 목표와 핵심은 무엇입니까?

'서울선언서'에서 말하는 "전 세계 예방문화 촉진"의 목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은 사회 각 주체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둘째, 산업안전보건을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채택하며 셋째, 국가 차원의 안전보건 예방문화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공단의 업무는 예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선언서가 공단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공단은 2008년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채택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선언서 채택 이후 공단은 서울선언서의 확산을 위해 전 방위로 노력중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와 공단이 공동 사무국을 설립하였으며 서울선언서 웹사이트도 개설 하는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LO, ISSA 그리고 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서울선언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행사 및 컨퍼런스에서 서울선언서를 지지하기 위한 서명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2009년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ICOH2015)를 유치하여 2015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와 국제산업보건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공단은 전 세계 예방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였고 더불어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에 공단은 ISSA 재해예방특별위원회 산하 예방문화위원회의 의장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방문화위원회의 미션과 현재 위원회가 우선순위로 두는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문화위원회의 미션은

첫째, 서울선언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관계자와 협력을 통한 예방중심의 안전보건문화를 촉진,

둘째, 전 세계 예방문화 증진을 위해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방문화위원회의 현재 우선순위는

예방문화를 추적관찰 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2013년 헬싱키 국제예방문화심포지엄 기간 중 진행된 ISSA 재해예방특별위원회 이사회에서 영국산업안전보건협회(IOSH) Ms. Jane White에게 예방문화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0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14년 프랑크푸르트) 시 공단이 주관한 "예방문화 증진" 심포지엄에서 Ms. White는 예방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10개의 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Ms. White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6년 11월 7일 ~ 12월 16일까지 독일 드레스덴에 소재한 DGUV 안전보건교육원에서 공단과 독일재해보험조합(DGUV)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공동연구의 결과는 올해 싱가포르에서 열릴 제21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공단 업무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공단의 한국인의 민족성에 내재된 안전에 대한 가치, 즉 인명존중을 기반으로 생명존중, 전문성, 소통 그리고 협력을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공단은 '국가별 산업안전 예방문화 마련 및 지속적 확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공단은 “안전제일”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우리 삶의 근간이며 우리의 미래(꿈)를 키우고 행복을 이룩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안전보건문화 축진은 공단의 4대 전략 중 하나입니다.

공단의 비전인 “일하는 사람의 행복과트너,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을 달성하기 위한 공단의 4대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안전보건문화의 축진입니다.

안전보건문화를 축진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 국가적인 안전문화 수준 향상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안전 문화를 한국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단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 및 안전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캠페인을 펼쳐왔고 이는 일상생활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문화캠페인은 ‘1,000만인 무재해 서명대회’로 안전보건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안전문화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996년에 안전문화추진위원회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안전 활동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한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뿐 아니라 공단은 안전문화와 관련하여 지어별로 특

성화된 활동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NGO, 노동조합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대중의 안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안전보건 활동의 범위를 다양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공단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함께 7월 첫 번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안전 관련 캠페인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 및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의식을 고양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포상하고 안전보건관련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해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매년 참가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교사, 학생, 노동조합 대표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행사입니다. 강조주간 행사는 국내 안전문화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제공

안전에 대한 인식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 교육으로 자라나고 사업장에서 안전훈련을 통해 완성됩니다. 즉, 교과 과정을 통한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의 안전교육은 아주 중요한데 어린 시절 안전에 대한 교육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며 안전에 대한 자세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단은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교육하는 안전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

고 학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아주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며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공단의 조기 안전 프로젝트에는 안전보건 교과과목에 대한 연구, 교사를 위한 안전보건 훈련, 시범학교 내 안전 교육 시행 및 교육훈련 자료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2016년 기준 공단은 28개국 54개의 국제 유관기관과 기술협력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제 전문기관과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ILO, WHO, ISSA, EU-OSHA, ASEAN-OSHNET 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기관으로서 한국 정부와 공단은 개발도상국가의 산재예방활동을 돕기 위해 기술지원 사업도 지속 중입니다.

또한 공단은 아시아 역내의 산업안전보건 리딩(leading)기관으로 역내 개발도상국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안전문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인간의 삶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하려면 원만한 인간관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사고로부터 보호되어 건강한 신체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활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안전문화는 벌써 행해졌어야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안전문화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단은 사업장 무재해운동이라는 하나의 안전문화 캠페인을 만들어서 확산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올해는 강조주간이 지정된 지 5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또한 공단은 안전보건 메시지를 방송, 출판물,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이나 연극과 같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개발해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공단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국민의 안녕과 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안전보건분야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업세계(The world of work)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급변하는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 환경(예: 위험 화학물질이나 산업재해와 같은 신종 위험 요소)에 대응하

여 글로벌 예방문화를 조성하여 실행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카월드란 용어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는 심리 사회학적 위험성(일부는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신체적 위험요소와 연관되어 있음)과 같은 신종 위험요소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의 안전문화는 어떻게 이러한 위험요소를 다루고 있습니까?

공단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직업병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 건강지수 도입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건강증진 수준을 향상시키고 감정노동 고위험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전문 컨설팅 서비스 및 재정 지원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전국에 20여개의 근로자건강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문화 촉진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이 조직적 차원에서 기업이나 정부 및 교육기관과 산업안전보건문화 촉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나요?

공단은 계층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교육과정 운영, 안전체험교육장 확충을 통해 현장실천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험교육,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미디어 보급망을 강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업종별 안전보건 리더그룹 운영과 지역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 공모사업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안전보건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계 공학자로서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안전문화”와 “예방문화”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안전문화와 예방문화의 차이점은 먼저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안전보건분야 가치의 중심은 안전에서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는 좀 더 정적(static)이며 대응적(reactive)인 반면 예방문화는 역동적(dynamic)이고 선제적(proactive-preventative)이며 안전이란 예방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단은 안전보건예방문화 촉진을 국가 전략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예방문화가 국가적으로 훌륭하게 정착이 된다면 이는 곧 전 세계에 예방문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